

생태체계이론을 적용한 외동 선택 어머니의 출산 결정 경험과 저출산 대책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한수희*

본 연구는 외동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출산 결정 경험과 추가 출산에 대한 인식을 생태체계이론의 관점에서 질적으로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외동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코칭형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자료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외동 선택은 사전에 계획된 결정이라기보다 출산과 양육 경험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맥락적 선택으로 나타났다. 미시체계에서는 신체적 피로, 정서적 소진, 경제적 부담이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중간체계에서는 부부의 양육 분담과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영향을 미쳤다. 외체계에서는 돌봄 서비스 접근성, 직장 환경, 제도적 조건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거시체계에서는 교육 경쟁, 사회문화적 규범, 외동에 대한 인식이 출산 결정의 배경을 형성하였다. 시간체계에서는 출산 전 기대와 실제 양육 경험의 차이, 자녀 성장 과정에서의 경험 축적, 생애주기 변화가 추가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외동 선택이 단순한 출산 기피가 아닌 삶의 조건과 양육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임을 보여 준다. 또한 출산 결정은 다양한 체계 수준의 환경 요인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상호작용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출산 및 가족정책은 당사자의 삶의 맥락과 생애주기적 변화를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외동 선택 어머니의 경험을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외동 자녀, 출산 결정, 추가 출산 의향, 생태체계이론, 질적 연구

논문 투고일 : 2026. 05. 19.

최종심사일 : 2026. 06. 18.

게재확정일 : 2026. 09. 24.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복지학과 박사

Corresponding author : Han, Suhe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00 Cheongpa-ro 47-gil, Yongsan-gu, Seoul, Korea. E-Mail: shshhsh@naver.com

I. 서론

한국 사회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정부의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반등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24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며, 최근에는 무자녀 가구뿐 아니라 외동 자녀 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통계청, 2025). 이는 단순한 출산 기피를 넘어 출산을 경험한 이후에도 추가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동 가정의 증가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동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자녀 특성에 적합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과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하다(이소희, 2005). 또한 저출산은 초혼 연령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교육비 부담, 자녀 가치관 변화 등 다양한 요인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한 자녀만을 양육하는 가족 형태가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 규모 축소와 소가족화를 심화시키는 저출산의 중요한 특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부모 간 양육 부담의 불균형이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손승희, 2025). 이는 출산 이후 양육 책임이 어머니에게 집중될 경우 부부관계와 가족 내 정서적 지지가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추가 출산 여부가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부모 간 양육 부담과 가족관계 경험의 영향을 받음을 보여준다. 또한 정미숙과 김준수(2021)는 여성의 사회적 자원과 추가 출산 의향 간 관계에서 남편의 육아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히면서, 배우자의 적극적인 양육 참여가 추가 출산을 고려할 수 있는 가족환경을 형성하는 데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돌봄 및 복지지원 역시 추가 출산 의향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석주와 조영민(2022)은 한 자녀를 둔 서울시 맞벌이 부부가구를 분석한 결과, 모성보호제도의 이용 경험과 출산지원제도에 대한 도움 기대, 아동돌봄정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추가 출산 의향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Kim, Lee와 Halliday(2023)는 한국의 유급 육아휴직 지원 확대가 임신 및 출산 관련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여, 출산 결정에서 돌봄지원 정책과 일·가정 양립 환경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최근 연구들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단순한 경제적 보상을 넘어 부모가 향후 출산을 계획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개인의 생애 경험과 건강, 출산 경험 또한 후속 출산 의향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오신희와 이소영(2023)은 첫 자녀 출산 후 3년 이내의 기혼여성을 분석하여 연령, 난임 경험 및 부정적 임신 경험이 둘째 출산 의향과 부적인 관련성을 보이는 반면, 자녀에 대한 가치와 정부에 대한 신뢰는 긍정적인 관련성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후속 출산 결정이 경제적 조건이나 정책지원만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첫 임신과 출산의 경험, 자녀양육 경험, 가족관계 및 제도에 대한 신뢰와 인식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기존의 저출산 연구는 경제적 요인, 제도적 지원, 노동 환경 등 구조적 변수와 출산 의향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양적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어머니가 외동을 선택하게 되는 과정과 그 결정에 부여하는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출산 결정은 임신과 출산 경험, 양육 부담과 정서적 소진, 배우자 및 가족의 지지 수준, 그리고 복지 제도에 대한 인식이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한은주·박정운, 2006). 또한 동일한 제도적 환경이라도 개인이 이를 어떻게 체감하고 해석하는가에 따라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최근 저출산 대응 정책이 확대·개편되고 있으나, 실제 수혜자들이 이를 얼마나 체감하고 있으며 출산 및 양육 결정과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외동 자녀를 둔 어머니는 실제 출산과 양육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 출산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저출산 현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외동 선택을 개인의 가치관이나 경제적 부담의 결과로 설명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 제도 및 사회문화적 환경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출산 결정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통합적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Bronfenbrenner의 생태체계이론을 분석 틀로 적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동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출산 결정 경험과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복지 조건에 대한 인식이 외동 선택과 추가 출산 의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태체계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외동 선택을 단순한 출산 기피 현상이 아닌 다층적 환경 속에서 형성된 경험으로 이해하고, 향후 부모 지원 정책 및 저출산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외동 자녀를 둔 어머니의 출산 결정 경험은 개인·가족·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는 외동 선택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3. 어머니는 현재의 복지 제도와 사회적 지원을 주관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출산 결정 경험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연구문제 4. 복지 조건의 변화는 어머니의 추가 출산 의향을 어떻게 재구성하게 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생태체계이론과 출산결정

Bronfenbrenner의 생태체계이론(Ecological Systems Theory)은 개인의 행동과 선택이 개인 내부 요인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 체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출산 결정 역시 개인의 가치관만이 아니라 가족관계, 양육 경험, 사회적 지원, 제도적 환경 및 사회문화적 맥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생태체계이론은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체계로 구성된다. 미시체계는 출산·양육 경험과 배우자 관계, 중간체계는 가족과 직장 등 환경 간 상호작용, 외체계는 직장 환경과 복지제도, 거시체계는 사회문화적 가치와 규범, 시간체계는 생애주기 변화와 경험의 누적을 의미한다. 특히 제도적 환경은 존재 자체보다 개인이 이를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는가에 따라 출산 결정에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김수혜, 2025).

Hashemzadeh et al.(2021)은 출산의향과 관련된 53편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생태체계모형을 적용하여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신체·심리적 건강, 자녀에 대한 욕구뿐 아니라 부부관계 만족도, 성역할 태도, 가족 및 사회적 관계망, 직업 특성, 주거환경, 사회문화적 가치와 규범 등이 출산의향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 결정을 개인 차원의 선택으로만 이해하기보다 개인과 가족, 사회 및 제도적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미시체계는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경험하는 가장 가까운 환경과 개인의 실제 경

험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경험한 임신과 출산, 첫 자녀 양육 경험, 양육부담과 양육스트레스, 심리적·신체적 부담 및 자녀에 대한 가치 등을 미시체계와 관련된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 Kim & Yi(2024)는 한국인의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메타분석한 결과, 여성의 연령과 양육스트레스는 출산의향과 부적인 관련성을 보이는 반면 사회경제적 수준과 배우자의 양육 참여 등은 출산의향과 정적인 관련성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양육스트레스가 출산의향과 관련된 주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첫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한 현실적인 부담과 심리적 소진이 후속 출산에 대한 판단에도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외동 자녀를 둔 어머니의 출산 결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출산의향뿐 아니라 첫 임신과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간체계는 개인을 둘러싼 가까운 환경들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출산 결정에서는 배우자와의 관계, 부모 간 양육분담, 가족의 지지 및 일과 가정생활 간의 관계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미숙과 김준수(2021)는 여성의 사회적 자원과 추가 출산의향의 관계에서 남편의 육아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부부 간 양육책임이 한쪽에 집중되기보다 상호 협력적으로 이루어질 때 첫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부담이 완화되고 추가 출산을 고려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외동 선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개인의 출산 가치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실제 양육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지, 부부가 양육부담을 어떻게 공유했는지, 가족으로부터 어떠한 지원을 경험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외체계는 개인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개인과 가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제도적 환경을 의미한다. 출산 결정과 관련해서는 직장환경, 고용안정성, 육아휴직, 보육서비스, 돌봄지원 및 출산·양육 관련 복지제도가 대표적인 외체계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김석주와 조영민(2022)은 한 자녀를 둔 서울시 맞벌이 부부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출산의향을 분석한 결과, 모성보호제도의 이용 경험과 출산지원제도에 대한 도움 기대, 아동돌봄정책에 대한 인식 등이 추가 출산의향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출산 및 양육지원 제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실제로 이를 이용할 수 있고 자신의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으로 체감할 수 있는지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거시체계는 사회 전반에 공유되는 가치와 문화, 성역할 규범, 결혼과 출산 및 부모됨에 대한 사회적 기대 등을 의미한다. Hashemzadeh et al.(2021)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사회문화적 가치와 규범을 거시적 수준의 주요 영향요인으

로 제시하였다. 특히 자녀와 가족에 부여하는 가치, 성역할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기대는 개인과 부부가 출산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의 책임이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사회적 환경에서는 출산 이후 여성이 경험하는 역할부담이 증가하고, 이러한 경험이 추가 출산의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간체계는 개인의 삶과 환경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이 현재의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산의향은 한 번 형성된 이후 지속되는 고정된 태도라기보다 결혼과 첫 출산, 자녀의 성장, 취업 및 경력 변화, 경제상황의 변화, 배우자 관계와 양육 경험 등 생애과정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가변적인 특성을 지닌다. 특히 첫 자녀를 출산하기 이전에 가졌던 추가 출산 계획도 실제 임신과 출산, 양육을 경험한 이후 수정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외동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결과만을 중심으로 출산 결정을 이해하기보다 첫 자녀 출산 전의 기대와 출산 이후의 경험, 양육 과정에서 경험한 부담과 지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 출산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과정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출산 결정은 하나의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독립적인 선택이라기보다 개인의 출산 및 양육 경험과 심리적 부담이라는 미시체계, 배우자의 양육 참여와 가족관계라는 중간체계, 직장·돌봄환경 및 복지제도라는 외체계, 출산·가족·성역할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라는 거시체계,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축적되고 변화하는 시간체계가 상호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선행연구들은 양육스트레스, 배우자의 양육 참여, 일·가정 양립 및 정책적 지원 등이 출산의향과 관련됨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각각의 요인이 실제 어머니의 삶에서 어떻게 경험되고 상호 연결되면서 외동 선택으로 이어지는지를 심층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태체계이론을 분석 틀로 적용하여 외동 선택 어머니의 출산 결정 경험과 그 의미를 질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2. 외동 선택 관련 국내 연구

국내의 외동 자녀 선택 관련 연구는 저출산 심화와 한 자녀 가구 증가 현상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져 왔다. 선행연구들은 외동 선택을 경제적 부담, 양육비 증가, 고용 불안정,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구조적 요인과 관련된 현상으로 설명하였다(이정원, 2014; 김미나·

이소은, 2018). 특히 보육 서비스 만족도, 양육효능감, 사회적 지지 수준은 후속 출산 의향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미나·이소은, 2018), 전효정(2024)은 모의 연령, 가구소득, 배우자의 육아분담, 가사노동 시간, 배우자의 출산휴가 등이 후속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설문조사 중심의 양적 연구에 기반하고 있어 외동 선택이 형성되는 과정과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의 정서적 소진, 돌봄 부담의 불균형, 배우자 및 가족의 지지가 출산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며(이진화, 2014), 전통적인 다자녀 규범이 약화되는 가운데 한 자녀에게 집중 투자하는 양육 방식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확대되고 있다(임재연, 2021).

종합하면, 기존 연구는 외동 선택의 구조적 요인과 후속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외동 선택이 개인의 경험, 가족관계, 제도적 환경,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어떠한 의미로 형성되는지에 대한 질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생태체계이론의 관점에서 다양한 환경 체계의 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외동 자녀를 둔 어머니의 출산 결정 경험을 생태체계적 맥락에서 질적으로 탐색하고, 외동 선택에 내재된 의미 구조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외동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출산 결정 경험과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코칭 기반 심층면담(coaching-based in-depth interview)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반구조화 면담에 코칭 질문기법을 접목하여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성찰하고 의미를 재구성하도록 돕는 방식이다(박지은·이은정, 2019). 본 연구는 이를 통해 외동 선택이라는 출산 결정 과정이 생태체계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의미화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외동 자녀를 둔 어머니 23명(만 34~52세)으로 구성하였다. 참여자들은 [세종·대전·충청권 등 실제 참여지역 기재]에 거주하고 있으며, 취업 여부와 가족형태, 자녀의 연령, 양육 및 돌봄지원 환경 등에서 다양한 특성을 보였다. 연구참여자의 거주지역과 사회·환경적 특성은 자녀 양육 경험과 추가 출산에 대한 인식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주요 맥락으로 고려하였다.

연구참여자 선정은 연구 목적에 적합한 경험을 가진 대상자를 의도적으로 선정하는 목적표집(purposive sampling) 방법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첫째, 현재 한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 둘째, 추가 출산 여부에 대해 고민하거나 외동 양육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 셋째, 자신의 출산 및 양육 경험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으며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로 설정하였다. 참여자 모집은 연구자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관련 기관 및 지인 등을 통한 안내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일부 참여자의 소개를 통해 연구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을 병행하였다.

또한 특정 연령이나 취업상태, 양육환경에 참여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참여자의 연령, 취업 여부, 가족 및 양육지원 환경 등을 고려하여 모집하였다. 이를 통해 외동 선택 및 추가 출산 결정이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가족관계, 양육지원체계, 직장 및 사회환경 등 다양한 생태체계적 맥락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폭넓게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참여자	연령대	취업여부	자녀연령, 성	연구 참여자	연령대	취업여부	자녀연령
1	만 45세	전일제 근무	만8세 여아	13	만 45세	전일제 근무	만10세 여아
2	만 46세	전업주부	만9세 여아	14	만 51세	전일제 근무	만16세 여아
3	만 39세	시간제 근무	만9세 남아	15	만 43세	전업주부	만6세 여아
4	만 35세	전일제 근무	만4세 여아	16	만 45세	시간제 근무	만8세 여아
5	만 49세	시간제 근무	만12세 남아	17	만 38세	전업주부	만7세 남아
6	만 46세	전일제 근무	만11세 여아	18	만 36세	전업주부	만5세 여아
7	만 52세	전일제 근무	만17세 여아	19	만 48세	전일제 근무	만13세 남아
8	만 43세	전업주부	만7세 여아	20	만 47세	전일제 근무	만11세 여아
9	만 45세	시간제 근무	만8세 여아	21	만 51세	시간제 근무	만15세 여아
10	만 38세	전업주부	만7세 남아	22	만 42세	시간제 근무	만6세 여아

11	만 34세	전업주부	만5세 여아	23	만 41세	전업주부	만7세 여아
12	만 48세	시간제 근무	만11세 남아				

2.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외동 자녀를 둔 어머니 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1 대면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본 면담을 실시하기에 앞서 연구 질문의 적절성과 면담 질문의 이해 가능성, 질문의 순서 및 소요시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구대상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예비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비면담을 실시하였다.

예비면담 결과, 일부 질문이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거나 다소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복되는 질문을 통합하고, 질문의 표현을 참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또한 단순히 ‘추가 출산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방식에서 벗어나, 첫 자녀 출산 이후 추가 출산에 대한 생각이 어떠했는지, 양육과정에서 어떠한 경험을 거치며 생각이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현재 외동 자녀를 양육하기로 결정하게 된 과정과 그 의미는 무엇인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질문의 순서를 조정하였다.

특히 외동 선택이 개인의 단일한 이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및 가족관계, 양육지원, 경제적 여건, 직장환경, 사회·문화적 인식 등 다양한 요인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경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보조질문을 추가하였다. 또한 코칭 기반 심층면담의 특성을 반영하여 “그 경험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 경험 이후 추가 출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다시 선택한다면 어떤 조건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은 성찰적 질문을 보완하였다. 이러한 예비면담 과정을 통해 질문의 내용과 순서를 수정·보완하여 최종 반구조화 면담지를 확정하였다.

최종 면담지는 첫 자녀의 출산 및 양육 경험, 추가 출산에 대한 초기 인식과 변화 과정, 외동을 선택하게 된 주요 경험과 계기, 배우자 및 가족의 영향, 돌봄 및 직장환경, 경제적·사회문화적 요인, 외동 선택에 대한 현재의 의미와 향후 출산 의향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실제 면담에서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기본으로 하되 참여자의 응답에 따라 추가적인 탐색 질문과 코칭 질문을 유연하게 활용하여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과 그 의미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면담은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녹음하였으며, 면담 시간은 1인당 평균 약 50분이었다. 면담 과정에서는 연구자가 참여자의 응답을 평가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도록 주의하였으며, 참여자의 경험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과 당시의 생각, 감정 및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였다. 면담 종료 후 녹음자료는 전사하여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최성호·김영천, 2017). 먼저 연구자는 참여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음자료와 대조하면서 전사한 후, 전사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외동 선택 및 추가 출산 결정과 관련하여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문장과 진술을 의미 단위로 구분하였다. 이후 각 의미 단위가 나타내는 경험과 의미를 중심으로 초기 코드를 생성하였다.

초기 코딩 과정에서는 참여자들의 표현을 가능한 한 그대로 반영하여 ‘아이 한 명을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함’, ‘육아로 인한 신체적·정서적 소진’, ‘둘째까지 키울 경제적 여유가 없음’, ‘교육비에 대한 부담’, ‘남편과 육아를 충분히 나누지 못함’,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가 부족함’, ‘조부모에게 지속적으로 도움받기 어려움’, ‘믿고 맡길 돌봄기관이 부족함’,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움’, ‘출산 후 경력단절에 대한 부담’, ‘둘째를 낳으면 첫째에게 충분히 해주기 어려울 것 같음’, ‘교육경쟁에 대한 부담’, ‘다자녀 지원정책이 실제 출산결정에는 크게 와닿지 않음’, ‘처음부터 외동을 결정한 것은 아니었음’, ‘양육경험이 쌓이면서 둘째 생각이 점차 사라짐’ 등의 코드가 도출되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의미가 유사하거나 서로 관련된 초기 코드들을 반복적으로 비교·검토하면서 상위 개념으로 범주화하였다. 예를 들어 ‘수면부족’, ‘육아소진’, ‘신체적 피로’, ‘개인시간 부족’ 등의 코드는 개인적 양육부담과 소진으로, ‘양육비 부담’, ‘교육비 부담’, ‘경제적 불확실성’은 경제적 부담으로 범주화하였다. ‘배우자와의 양육분담’,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 ‘가족의 도움’은 가족관계와 양육지원, ‘돌봄기관 이용의 어려움’, ‘직장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 ‘경력단절 우려’는 돌봄 및 직장환경의 제약으로 묶었다. 또한 ‘교육경쟁에 대한 부담’, ‘한 자녀에게 집중하고 싶은 욕구’, ‘다자녀 지원정책의 낮은 체감도’ 등은 사회·문화적 환경과 정책에 대한 인식으로 범주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외동을 결정한 것은 아님’, ‘양육과정에서 생각이 변화함’, ‘시간이 지나면서 외동 선택이 굳어짐’ 등의 코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출산결정의 변화로 범주화하였다.

이후 도출된 범주 간의 관계와 의미를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연구주제와 생태체계이론의 관점에 따라 최종 범주를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첫째, 미시체계 수준의 개인적·양육적 부담, 둘째, 중간체계 수준의 배우자 및 가족관계와 양육지원, 셋째, 외체계 수준의 돌봄환경과 직장제도의 제약, 넷째, 거시체계 수준의 교육경쟁 및 사회문화적 가치와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다섯째, 시간체계 수준의 양육경험 누적에 따른 출산결정의 변화라는 5개의 핵심 범주가 도출되었다.

특히 시간체계 범주에서는 외동 선택이 특정 시점에 이루어진 단일한 결정이라기보다 첫 자녀의 출산과 양육, 배우자 및 가족과의 관계, 돌봄과 직장생활의 경험, 경제적·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누적되면서 점차 형성된 ‘과정적 결정’이라는 특성이 확인되었다.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초기 코드와 범주화 결과를 반복적으로 검토하고, 의미가 중복되거나 경계가 불분명한 코드는 통합·수정하였다. 또한 도출된 범주와 주제가 참여자들의 실제 경험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원자료와 지속적으로 비교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생태체계이론의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및 시간체계의 관점에서 연구결과를 재해석하였다.

4.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참여자 검토, 이론적 삼각검증, 동료 검토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분석 결과를 참여자에게 확인받고 필요한 경우 후속 질문을 진행하였다. 또한 생태체계이론을 적용한 삼각검증(Denzin, 1978; Thurmond, 2001)과 아동복지 및 상담 전공 박사 2인의 동료 검토를 통해 분석 결과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점검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생태체계이론을 분석 틀로 적용하여 외동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출산 결정 경험

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외동 선택은 개인의 출산·양육 경험, 가족관계, 제도적 환경, 사회문화적 규범, 그리고 시간에 따른 인식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연구문제별로 제시하였으며, 각 결과를 생태체계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연구문제별 결과와 생태체계 분석틀의 연계는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문제별 결과와 생태체계 분석틀의 연계

연구문제	하위범주	생태체계
연구문제1. 외동 자녀를 둔 어머니의 출산 결정 경험은 개인·가족·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형성 되었는가?	1) 출산 및 양육경험에서 비롯된 개인수준의 부담	미시체계
	1) 감당가능한 양육으로서의 외동선택	미시체계
연구문제2. 어머니는 외동 선택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2) 배우자 및 가족관계 속 외동선택의 의미	중간체계
	3) 외동선택에 대한 사회적 시선 속 의미 재구성	거시체계
연구문제3. 어머니는 현재의 복지제도와 사회적 지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출산결정 경험과 어떻게 연결 되는가?	1) 돌봄자원의 접근성과 신뢰문제	외체계
	2) 체감되지않는출산·양육복지	외체계
연구문제4. 복지조건의 변화는 어머니의 추가 출산의향을 어떻게 재구성하게하는가?	1) 조건부 출산의향의 형성	외체계-거시체계
	2) 시간에 따른 출산인식의 변화 과정	시간체계

1. 외동 자녀를 둔 어머니의 출산 결정 경험은 개인·가족·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1) 출산 및 양육 경험에서 비롯된 개인 수준의 부담(미시체계)

미시체계는 개인이 직접 경험하는 환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출산 및 양육 경험이에 해당한다. 참여자들은 출산 이후 신체적 회복의 어려움, 수면 부족, 지속적인 돌봄 부담으로 인해 출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만혼, 난임, 높은 사교육비와 양육비 부담 역시 추가 출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병원비, 육아용품비, 식비

등 지속적인 경제적 부담과 양육 스트레스는 출산을 일회성 사건이 아닌 장기적인 책임으로 인식하게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추가 출산에 대한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취업과 양육을 병행하는 참여자들은 직장생활 이후에도 자녀 돌봄과 가사노동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만성적인 시간 부족을 경험하고 있었다. 단순히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충분한 관심과 돌봄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도 함께 나타났다.

“일단 시간이 항상 부족해요. 퇴근하고 나면 아이랑 놀아줄 시간도 부족하고 집안일까지 하려면 하루가 너무 짧아요. 그리고 외동이다 보니 아이가 혼자 노는 시간이 많아서 친구랑 어울리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해요. 그런 부분이 늘 마음에 걸려요.”(참여자 4)

“아이가 안생겨서..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하나밖에 안 낳았어요. 안 생긴것도 한 몫 하고요.”(참여자 20)

“지원이 옛날보다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생각보다 훨씬 큼니다.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꼭 필요한 곳에 충분히 지원이 닿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원이 있어도 결국 많은 비용을 스스로 감당해야하죠”(참여자 13)

“아이를 낳고 나서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돌봐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참여자 6)

“결혼을 늦게 하여 자연스럽게 출산이 늦어졌고, 경제적 여유도 없다.”(참여자 1)

2. 어머니는 외동 선택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1) 감당 가능한 양육으로서의 외동 선택(미시체계)

미시체계는 개인이 직접 경험하는 환경과 이에 대한 인지적 해석을 포함한다. 참여자들은 외동 선택을 출산의 포기나 실패가 아닌, 자신의 경제적·정서적·신체적 자원을 고려하여 자녀를 충분히 돌보기 위한 현실적 선택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자녀 양육에 많은 시간과 비용, 정서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인식하며, 한 자녀에게 집중하는 것이 보다 책임 있는 부모 역할 수행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자신의 체력과 정서적 안정이 양육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처럼 외동 선택은 단순한

자녀 수의 문제가 아니라 감당 가능한 양육 역량과 삶의 균형을 고려한 결정으로 나타났다.

“둘을 낳으면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제가 아이들에게 충분히 해줄 수 없을 것 같아요. 한 명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참여자 5)

“아이를 키우다 보니 생각보다 체력도 많이 필요하고 부모 역할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참여자 9)

2) 배우자 및 가족관계 속 외동 선택의 의미(중간체계)

중간체계는 개인을 둘러싼 주요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와 가족 내 양육 역할 구조가 이에 해당한다. 참여자들은 배우자의 육아 참여가 제한적이거나 양육 책임이 어머니에게 집중될수록 추가 출산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또한 가족의 정서적·실질적 지원이 부족할수록 외동 체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부부 갈등과 양육 가치관의 차이 역시 추가 출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출산 결정이 개인의 의사뿐 아니라 가족관계와 돌봄 환경 속에서 형성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남편이 도와주긴 하지만, 결국 책임은 제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 중 온전히 쉬는 시간은 1~2시간 정도밖에 안돼요. 아이가 잠든 시간에 집안일을 해야 하다 보니 쉬는 시간이 사실상 없는 거죠.” (참여자 15)

3) 외동 선택에 대한 사회적 시선 속 의미 재구성(거시체계)

거시체계는 사회 전반의 가치와 규범, 문화적 기대를 포함한다. 참여자들은 ‘형제자매는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속에서 외동 선택에 대한 압박을 경험하였으나, 자신의 선택을 가족의 현실과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결정으로 재해석하고 있었다. 또한 한 자녀에게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는 것을 책임 있는 부모 역할로 인식하였으며, 사회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외동 선택의 긍정적 의미를 재구성하고 있었다.

“왜 하나만 낳았냐는 말을 계속 듣게 돼요. 외동이라 사회성 부족이나 부모의 지나친 관심

으로 자기중심적 성격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참여자 7)

3. 어머니는 현재의 복지 제도와 사회적 지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출산 결정 경험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1) 돌봄 자원의 접근성과 신뢰 문제 (외체계)

외체계는 개인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삶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 체계를 의미하며, 보육 기관, 돌봄 서비스 체계, 직장 환경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보육 시설의 질적 수준과 접근성의 한계, 그리고 긴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돌봄 체계의 부재를 추가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이는 제도적 돌봄 인프라의 존재 여부뿐 아니라, 그에 대한 신뢰 가능성과 실제 활용 가능성이 출산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우연찮게 부부가 야근을 하게 될 때, 돌봄 받을 곳을 찾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처가나 시댁과의 거리도 멀어 의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참여자3)

2) 체감되지 않는 출산·양육 복지 (외체계-제도 인식)

참여자들은 출산·양육 지원 정책의 존재는 인식하고 있었지만, 실제 양육 과정에서 체감하는 지원 수준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정보 부족이나 복잡한 신청 절차로 인해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한 경험을 보고하며, 정책의 존재와 실제 이용 경험 사이의 간극을 지적하였다. 또한 단순한 경제적 지원보다 돌봄 지원, 정보 제공, 긴급 돌봄 서비스 등 실질적인 양육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교육비와 돌봄 비용에 대한 부담은 자녀 성장 이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는 추가 출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출산 결정이 현재의 지원 수준뿐 아니라 향후 양육 부담에 대한 전망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양육비를 지원한다면 19살까지 고정적으로 준다면 많이 낳을 의향이 생길 것 같다. 가장 중요한건 경제적인 요건이니까요. 지원이 있어도, 부모가 모르면 아무 소용 없어요. 있는 건 많은 것 같은데, 어디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지원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지원이 있어도 우리가 몰라서 못 받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참여자 19)

4. 복지 조건의 변화는 어머니의 추가 출산 의향을 어떻게 재구성하게 하는가?

1) 조건부 출산 의향의 형성(외체계-거시체계 연결)

참여자들은 추가 출산 의향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양육 환경 전반의 질적 개선 여부에 따라 형성된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다자녀 중심 정책에서 소외된 외동 가정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 방과후 돌봄 및 진로 프로그램 확대,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지원하는 실질적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또래관계 지원, 부모교육, 가족체험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기반의 양육 지원 체계가 강화될 경우 추가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출산 의향이 단순한 금전적 보상보다 돌봄, 교육, 가족 참여를 포함한 양육 생태계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즉, 추가 출산 의향은 외체계 수준의 제도적 지원과 거시체계 수준의 양육 가치 및 가족 역할 인식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재구성되고 있었다.

“부모의 퇴근 시간과 아이의 하교 시간이 맞지 않아 생기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이 더 확대되었으면 한다. 아이의 또래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 행동을 사회적 기술 훈련으로 교정하거나, 부모가 일관성 있는 훈육 방법을 배울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도 강화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참여자 14)

2) 시간에 따른 출산 인식의 변화 과정(시간체계)

시간체계는 개인의 생애 과정에서 경험이 누적되며 형성되는 변화를 의미한다. 참여자들

은 출산 전에는 둘 이상의 자녀를 희망했으나, 출산과 양육 경험이 축적되면서 출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외동 선택은 출산 이전부터 고정된 계획이라기보다 양육 부담, 직장과 육아의 병행, 경제적 여건, 자녀 성장에 따른 환경 변화 등을 경험하면서 형성된 과정적 결정으로 나타났다.

“처음엔 둘을 낳고 싶었어요.. 그런데 첫째 아이를 키우다 보니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고
요. 출산 후 직장에 다시 복직 하면서 육아랑 일을 병행하는게 쉽지 않았어요. 또 요즘 물가
나 교육비도 부담되고 집도 좁아서 현실적으로 한 명만 낳기로 결정했어요” (참여자 11)

이처럼 외동 선택은 개인의 양육 경험(미시체계), 가족관계(중간체계), 제도적 환경(외체계), 사회문화적 규범(거시체계), 그리고 시간에 따른 인식 변화(시간체계)가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 과정적 선택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 결정이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다층적 생태체계 속에서 구성되는 맥락적 행위임을 보여준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외동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출산 결정 경험과 외동 선택의 의미, 복지제도에 대한 인식, 그리고 복지조건 변화에 따른 추가 출산 의향을 생태체계이론의 관점에서 탐색하였다.

먼저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외동 자녀를 둔 어머니의 출산 결정은 개인적 요인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복합적 과정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경험한 신체적 피로, 정서적 소진, 경제적 부담을 주요 요인으로 언급하였으며, 부부 간 양육 부담, 가족의 지원, 직장 환경, 돌봄 체계, 사회문화적 규범 등이 상호작용하며 외동 선택이 형성되었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출산 결정이 개인·가족·사회 환경이 중층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생태체계 이론의 관점을 지지하며, 출산 의사결정을 다차원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이삼식, 2018; 정현숙·김은지, 2020).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외동 선택을 출산 포기나 실패가 아닌 ‘책임 있는 부모

역할 수행을 위한 합리적 선택'으로 의미화하고 있었다. 한 자녀에게 더 많은 시간과 정서적·교육적 자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이유로 외동을 선택하였으며, 이는 부모의 양육방식과 부모-자녀 상호작용이 자녀 발달에 중요하다는 안희숙과 도미향(2025)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참여자들은 다자녀 중심 규범을 경험하면서도 외동 가정 역시 정상적이고 건강한 가족 형태라는 인식을 형성하고 있었다.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참여자들은 현재의 복지제도와 출산장려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양육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원 수준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경제적 지원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체계, 긴급 돌봄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 여성이 출산과 양육의 이중 부담 속에서 공적·사적 돌봄 자원을 활용하게 된다는 장지연·호정화(2001)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친정부모의 돌봄 지원 가능성이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배호중·한창근·양은모(2017)의 연구는 출산 이후 활용 가능한 돌봄 자원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는 출산 결정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보다 돌봄 부담과 생활의 안정성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시사하며, 저출산 정책 역시 체감도와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문제 4와 관련하여, 참여자들의 추가 출산 의향은 고정된 태도가 아니라 사회적·제도적 조건 변화에 따라 재구성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돌봄 지원 체계가 마련되고 양육 부담이 완화되며 부부의 양육 여건이 개선될 경우 추가 출산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복지지원이 확대되더라도 건강 상태, 연령, 양육 피로감, 가치관 변화 등 개인적 요인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가 출산 의향이 정책 변화만이 아니라 개인적 경험과 구조적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됨을 보여준다. 또한 부모의 양육 경험과 부모효능감이 가족의 삶의 질과 부모 역할 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고경미(2015)의 연구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종합하면, 외동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출산 결정은 개인적 경험, 가족 관계, 사회문화적 환경, 복지제도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형성되는 복합적 과정이었다. 외동 선택은 단순한 출산 회피가 아니라 현재의 조건 속에서 최선의 양육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의미화되고 있었으며, 복지제도에 대한 인식과 추가 출산 의향 역시 실제 양육 경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저출산 정책은 출산을 제고 자체보다 부모가 체감하는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고경미(2015). PSWS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부모효능감과 어머니-유아 간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부모교육연구** 12(2), 1-22.
- 김미나·이소은(2018). 보육서비스 만족도와 양육효능감이 후속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36개월 이하 한 자녀 어머니를 대상으로.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2(3), 123-144.
- 김석주·조영민(2022). 서울시 맞벌이 부부가구의 추가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 출산장려정책의 경험과 기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69(3), 97-122.
- 김수혜(2025). 여성의 후속출산 의향에 관한 다층모형 분석 : 자녀교육 및 보육비 부담의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31(5).
- 박지은·이은정(2019). 코칭 기반 질적 연구에서 심층면담의 활용 가능성 탐색. **한국코칭학회**, 12(2), 45-68.
- 배호중·한창근·양은모(2017). 친정과의 거리와 자녀출산: 2000년 이후 혼인가구를 대상으로. **보건사회연구**, 37(2), 5-40.
- 손승희(2025). 0세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 양육 부담 불균형이 어머니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사 부담 불균형의 조절효과. **부모교육연구**, 22(2), 133-153.
- 안희숙·도미향(2025).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방식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표현어휘력 매개효과. **부모교육연구**, 22(1), 39-58.
- 오신휘·이소영(2023). 기혼여성의 둘째아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생식건강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모자보건학회지**, 27(2), 110-118.
- 이삼식(2018). 한국 사회 출산 결정 요인에 대한 질적 연구. **보건사회연구**, 38(4), 5-34.
- 이소희(2005). **현대가족복지론**. 서울: 양서원.
- 이정원(2014). 1명의 영유아 자녀를 둔 취업모의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육아정책연구**, 8(2), 31-56.
- 이진화(2014). 한 자녀 가정의 후속출산계획 관련 변인 연구.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 임재연(2021). 한국 여성의 가족가치관 변화와 출산의향. **한국사회학**, 55(2), 89-118.
- 장지연·호정화(2001). 여성 미취업자의 취업의사와 실업탈출과정: 미취업기간 탈출률의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5(4), 159-188.
- 전효정(2024).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한 한자녀 기혼여성의 후속 출산의향 예측: 머신러닝 방법의 적용. **한국보육지원학회지**, 20(2), 127 - 143.
- 정미숙·김준수(2021). 여성의 사회자본이 추가 출산 의향에 미치는 영향: 남편 육아 참여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보건과 복지**, 23(3), 111-135.
- 정현숙·김은지(2020). 부모의 출산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5(3), 391-417.
- 최성호·김영천(2017). 질적자료분석 방법으로서 영역 분석: 그 다양한 방법들의 탐색. **질적탐구**, 3(1), 133-155.

- 통계청(2025). 2024년 출생·사망통계(잠정)』.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한국재경신문. 2008. 4. 29.
- 한은주·박정운(2006). 한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선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11).
- Denzin, N. K.(1978). *The Research Act: A theoretical introduction to sociological methods* (2nd ed.). New York: McGraw-hills.
- Hashemzadeh, M., Shariati, M., Mohammad Nazari, A., & Keramat, A. (2021). Childbearing intention and its associated factors: A systematic review. *Nursing Open*, *8*(5), 2
- Kim, K., Lee, S.-H., & Halliday, T. J. (2023). Paid childcare leave, fertility, and female labor supply in South Korea. *Review of Economics of the Household*, *21*, 1433-1451.
- Kim & Yi (2024). Determinants of fertility intentions among South Koreans: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Behavioral Sciences*, *14*(10), 939.
- Thurmond, V. A.(2001). The point of triangulation.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33*(3), 253 - 258.

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f Childbirth Decision-Making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Low Fertility Policies among Mothers of Only Children: Applying Ecological Systems Theory

Han, Su Hee*

This study aimed to qualitatively explore the childbearing decision-making experiences of mothers raising an only child and their perceptions of additional childbearing from the perspective of ecological systems theor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mothers raising an only child, and the collected data were qualitatively analyzed. The findings show that the decision to have only one child was not predetermined but developed through accumulated childbirth and parenting experiences. At the microsystem level, physical exhaustion, emotional burnout, and financial burden influenced the decision. At the mesosystem level, parental role-sharing and family support were important factors. At the exosystem level, childcare services, workplace conditions, and policy accessibility acted as constraints. At the macrosystem level, sociocultural norms and educational competition shaped perceptions of childbearing. The chronosystem revealed that changing life circumstances and accumulated parenting experiences continuously reshaped childbirth intentions. The findings suggest that choosing to raise only one child should be understood as a meaningful and contextual decision rather than simply an avoidance of childbirth. They also highlight the need for family policies that reflect the lived experiences of parents, childcare realities, and life-course changes.

Keywords: only-child families, childbirth decision-making, perceptions of low fertility policies, ecological systems theory, qualitative research

* Ph.D., Department of Child Welfare, Graduate School, Sookmyung Women's University